



메리츠증권 정종환 차장은 부광약품과 MDS테크를 추천했다. 정 차장은 부광약품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의 영향으로 제약주의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네릭(일명 카피약) 비중이 낮고 연구개발 능력이 탁월, 최근 시판에 들어간 B형 간염치료제

간염치료제가 실적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MDS테크는 안정적인 실적으로 인해 리스크가 낮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등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약 '레보비르' 시판 실적 기대

(B형간염치료제)

■ 부광약품

아락실과 파리돈타스로 유명한 제약회사. 약국용 일반약품과 신경용제, 간질환 치료제 등 처방약에 고루 분포된 매출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치옥타시드(신경치료제), 레카론(간치료제), 오르필(간질치료제) 등 주력 제품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었고 환율하락에 따른 원재료 수입단가 인하로 원가구조가 개선됐다.

지난해 말 B형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에 대한 시판허가를 취득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B형 간염치료제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600억 원 정도지만 레보비르 출시로 1천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 등 선진국 제약회사와 레보비르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기술 수출로 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로 인한 매출증대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레보비르의 가치를 4천900억원으로 추정하



고 해외에서의 로열티 발생 가능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20년5천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주가는 레보비르의 신약효과를 선 반영해 지난해 9월이후 꾸준히 상승한데 시판허가가 난 지난해 11월 13일을 기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지켜온 월봉상 2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한미 FTA에 따라 제약주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광약품은 카피약 비중이 5% 미만이고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점유율 90%…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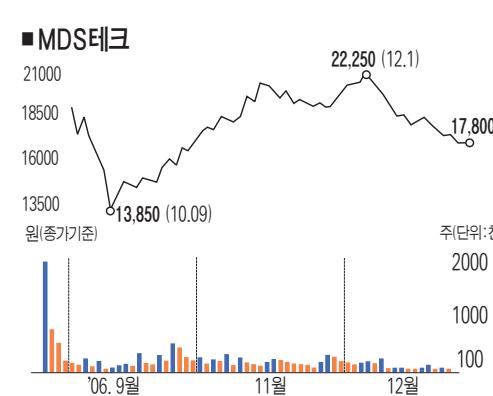
■ MDS테크

임베디드 솔루션·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임베디드란 특정 목적을 위해 적합한 하드웨어를 설계한데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최적화시킨 시스템으로 휴대폰, 자동차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 업체는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 개발 솔루션과 휴대폰 시장 자동화 솔루션 등 주로 휴대폰과 자동차에 내장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휴대폰이 42%, 자동차분야가 1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부터 디버깅(문제점을 바로잡는 작업), 인증테스트까지 일괄적으로 수주해서 공급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외 유일의 전문 임베디드 업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



다. 또한 자동차, PMP, PDA, 전기밥솥 등 IT제품의 기능융합 추세에 따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수요가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에 상장한지 3개월밖에 안된 신규주는 점과 주가가 1만4천원에서 2만2천 원선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 매수시기를 박스권 하단에 접근할 때 등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황금돼지해 투자 유망주

"반도체·IT주 주목하라"



삼성전자, 와이브로 상용 장비 수출

와이브로 TVA로 공급되는 와이브로 상용 장비가 구립 30일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출하식을 마치고 운송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7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와이브로 상용서비스 개시에 따라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획부동산 뿌리 뽑는다

건교부·검찰·국세청 합동 조사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땅 투기를 부추겨 전국의 땅값 불안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해 땅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집중 단속을 대비적으로 벌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뿌리뽑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협동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건교부가 기획부동산업자를 뿌리뽑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들이 거짓 개발정보를 유포하면서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OO육립조합', 'OO영립법인'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조만간 개발될 인유망 땅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신문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60만명 돌파

일자리 창출 부진과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처음으로 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해 청년층 실업대책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평균 신청자 수가 5만명을 웃돈데다 월 4만명 밀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로는 60만명을 훌쩍 넘어서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27%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사회문제화된 청년층의 구직난을 어필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작년 수출 3,260억 달러

전년보다 14.6% 늘어

166억5천만 달러 흑자

지난해 수출이 당초 목표치 3천180억 달러를 넘어 3천26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잡정 집계됐다.

산업자원부는 1일 2006년 연간 수출액이 전년보다 14.6% 늘어난 3천25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3천93억3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66억5천만 달러였다.

수출 증가율은 14.6%로 전년(12.0%)에 비해 높아지면서 세계 11번째로

3천억 달러를 넘었으나 수입 증가율이 18.4%로 수출 증가율을 능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액은 2005년에 비해 65억3천만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32.9%), 선박(24.7%), 반도체(23.5%), 자동차부품(21.6%) 등이 2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무선 통신기기(-1.6%)는 전년에 비해 수출액이 소폭 줄었고 일반기계(7.7%) 수출 증가율도 전체 수출 증가율에 크게 뒤지며 부진했다.

20일까지 수출분으로 집계한 지역별 수출은 중남미지역이 34.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부

상하고 있는 인도(21.6%)로의 수출도 크게 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 지역(7.4%)의 수출증가율을 크게 능가했다.

수입은 고유가로 원유 수입액이 전년 426억1천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559억5천만 달러로 급증하는 등 원자재 수입이 22.9% 늘었고 항공기(118.8%)와 일반기계(14.4%) 등 자본재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휴대용 전화기(199.3%)와 승용차(49.6%) 등 내구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도 높은 수입 증가율에 일조했다.

/연합뉴스

'매출 10조원-순익 1조원' 클립

KT 합류…8개로 늘어

작년 원·달러환율 하락과 경기부진, 유가상승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도 매출액 10조원·순익이 1조원을 넘어선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증권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매출 10조원-순익 1조원'을 넘어선 기업은 KT가 추가돼 기존의 삼성전자와 POSCO, 한국전력, 국민은행, SK텔레콤, 현대차, SK 등 8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제213회

제36회

제213회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민원)	마감일	연락처
㈜비로풀	인터넷 쇼핑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05	010-4444-5484
㈜한성일렉토	공장장제어 PLC HMI 서보 도면설계 시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1/15	062-972-9029
㈜아이아교실	컴퓨터 방과후 컴퓨터 강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1/15	017-609-5229
㈜오리온 호서팀	할인마진 근무 담당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15	062-373-2393
삼강특수공업㈜대불공장	품질관리/문서입력관리/조선블록 경력자 과장 모집	고졸/경력3년	3400~3600	01/15	061-464-7020
인터세이브	설립있는 월디지이너 모집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15	062-225-0054
주기성	납품/배송/출하관리 시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15	062-942-2636
주피루	전자 임크 제조/인쇄 전자 재료 연구원 모집	대학원/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61-759-5199
니주이천식품	생산직 및 사무관리 시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61-337-8511
남해칠강㈜	설계직 및 건설 품질/제작/공정 관리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1/15	062-943-8676
㈜한국정보상무점	SK텔레콤 한국정보 상무지점 시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0	062-374-7400
피니언(엔지ニア)	기술/시스템·전자제어/계측기 기술 영업 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200~2400	01/20	02-2058-1812
㈜분드나라	배송 및 청고관리 시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20	062-525-9002
㈜웹이즈	비보시광 웹개발자(PHP) 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1/20	02-6928-104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한전기공 '한전KPS'로 변경

한국전력의 계열사 한전기공이 사명을 '한전KPS'로 바꿨다.

한전기공은 1일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사명을 '한전KPS'로 개칭하고 새 CI(기업 이미지) 선포식을 2일 경기도 성남 분사에서 갖는다고 밝혔다.